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오늘 선교주일로 지킨다

과송 선교사 가족위해 특별 기도
오늘 선교총회, 저녁엔 선교헌신예배
24개 교회학교 선교 고취 위한 설교와 공과공부



오늘은 교회에서 선교주일로 지킨다.
교회는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을 선

교주일로 정하고 온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이해와 사명을 새롭게 하고 선교적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지켜왔다.

선교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선교사 및 선교전시회, 선교회 총회, 선교헌신예배 등을 진행한다. 오늘 I, II, III, IV부 예배시간에는 선교회비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오후 3시 본당에서는 선교지 소식 및 선교 현황을 보고하고 선교 비디오도 상영하는 '97 선교총회가 열린다.

또한 저녁 찬양예배는 선교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마련한다. 선교헌신예배는 박경환 목사의 사회, 설교에 선교위원회 지도 이승림 목사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고후 8:9), 그리고 선교연구원 수료생과 선교위원, 실행위원들의 찬양순서도 준비되어 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우리가 선교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선교는 예수

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요 유언의 말씀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의 완성을 위해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신 말씀의 요약은 '선교'였다.

오늘 선교주일을 지키며 우리는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이해와 사명을 확인하고 헌신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기까지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97 충헌청지기 훈련 실시

일꾼 전체모임 1월 29,30일

위원회별 모임은 따로 위원회 자체에서

본 교회 교육훈련원 산하 성경연구원에서는 '97 충헌청지기훈련을 1월 29일(수)과 30일(목)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97년 한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힘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헌신된 충헌의 청지기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재무장함으로써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금번 청지기훈련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자!' '충성과 헌신을 실천하자!' '기쁨과 감사로 하나되자!'라는 목표 아래 본교회 본당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주제성구는 '그러므로 배 속에 있는 것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눅 11:35)이며, 주제 찬송은 519장(십자가를 질 수 있다)이다.

훈련대상은 제직 전원(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과 권찰, 각부서 봉사자(각 교구일꾼, 교사, 찬양대원, 각 전도회원, 양육부원, 교회직원, 청년·대학부 임역원과 조장, 차량관리

부원 기타 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평신도 중 훈련받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전체 모임의 강사는 이진영 목사(사진, 인천제2교회 담임목사)가 하게 된다.

한편 예년에는 각 위원회별 일꾼 훈련을 동시에 실시했으나, 금년에는 위원회의 특성에 맞추어 각 위원회별로 계획을 세워 일꾼들을 훈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자체 계획을 세워 실질적인 훈련을 하게 된다.

각 교구에서는 교회일꾼 전원이 청지기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라며, 해당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해를 시작하며 각자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날 (1월 29일, 수요일)

6:00-6:50	식사 및 교제 시간
7:00-8:00	강의(1)(이진영 목사)
8:00-8:10	휴식 및 교제
8:10-9:00	강의(2)(이진영 목사)
9:00-9:10	기도회(인도 장정철 목사)

둘째날 (1월 30일, 목요일)

6:00-6:50	식사 및 교제 시간
7:00-8:00	강의(3)(이진영 목사)
8:00-8:10	휴식 및 교제
8:10-9:00	강의(4)(이진영 목사)
9:00-9:10	기도회(인도 김동석 목사)

금주의 위원회 청지기 훈련

예배위원회

· 26일(오늘) 오후 3시, 본당

찬양위원회

· 26일(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갈릴리움

97년도 제1기 출판국 기자 모집

충헌교회 출판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간충헌과 계간충헌을 함께 꾸며나갈 헌신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열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1. 모집부문: 사진기자 0명
취재기자 0명
2. 자격: 충헌교회 세례교인으로 대학부 이상의 모든 정도
3. 제출서류: 이력서 1통
(교적번호 기재)
4. 문의: 충헌교회 출판국
(선교관 303호 교환 516, 348번)

새가족과 인도자에게 알립니다

97년부터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새가족들에게는 새가족부에 등록하세고 반드시 4주 이상의 새가족부 교육과 한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역자의 입적심방이 있게 되고 이 심방을 받게 되면 충헌교회의 정식 교인으로써 교적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구의

심방이나 교인으로서의 특권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새가족부에 등록하지 않은 새가족들은 새가족부에 등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앞으로 새가족들을 인도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새가족들을 새가족부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나그네 인생

(시편 39:7-13)

나그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1)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임금입니다. 권세가 당당하고 재산이 많고 모든 면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나니까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사람 앞에서 존경이 무너졌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도망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육신의 주소는 서울도 좋고 평양도 좋고 부산도 좋거나 영혼의 주소는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격의 주소가 어디인가가 중요합니다.

땅 위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권세에 소망을 둡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향락에 소망을 두고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며 소망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데 소망을 두는 것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림자처럼 알맹이가 사라지기 쉬운데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행과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소망을 하나님 한 분께만 두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희망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에 충실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내용이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의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육신의 자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발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불행합니다. 또 믿을 수 없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미련합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을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은 피로워도 내일은 꽃이 피고 모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2) 회개를 철저히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회개부터 합니다. 죄를 숨겨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 마음으로 범한 죄, 말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를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자기의 신변 보호를 부탁합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과 편박을 당합니다. 다윗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거짓 계획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병이 나든지 사업에 실패가 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 왕에게는 몸에 병이 나고 가정적으로 큰 난리가 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어려움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며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여서 채찍을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매가 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남은 것은 보전되고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찾게 됩니다. 그러나 매를 맞고도 회개하지 못하면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히는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매를 한 번 맞고도 깨닫지 못하여 또 다시 죄를 범하다가 더 큰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세상은 허무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바로 살기를 결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3) 늘 기도합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합니다. "주여" 하고 시작하는 기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정당한 기도입니다. 다윗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욕심 없이 하는 기도인데 감사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개인 사정, 교회 사정, 민족의 사정을 다 내놓은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사정을 고백하고 나니까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돈 주시면 바로 쓰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바로 쓰겠습니다." 바로 살 것을 계획하고 간구하는 것이 진실한 기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그림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영육간에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끝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때에 하나님 앞에 가만가만 간구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부르짖습니다. 그보다 더 급하면 눈물을 흘리며 달라 붙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기도하나이다" "부르짖나이다" "눈물을 흘리나이다"가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차츰 깊이가 더해 가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다른 면에서 기도의 계단을 살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세요' '나는 약하고 원수는 강하고, 나는 약하나 세상은 험하나 도와 주세요' 하는 것도 겸손한 기도같으나 아직 초보 기도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기도는 '불들어 주세요'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많으나 하나님이 불들어 세워 주시지 않으면 성을 쌓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효과가 있고 내가 쓰면 역효과가 나겠으니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깊이 들어간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가만 드리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려서 결사적인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고 결심하며 써주세요 하는 차원 높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만 받으면 평안이 옵니다. 첫째, 영혼에 평안이 오고 둘째, 마음에 평안이 오고 셋째, 육신의 평안이 오고 넷째, 남에게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넘치는 평안이 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 다니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나그네에게는 잊어 버리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그네로 다니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에 병이 들고 고생만 하게 됩니다. 누가 물 한 잔만 줘도 감사의 말을 하는 나그네가 되어야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셋째는 짐을 조금만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묵은 여관에 손해를 보이면 안 됩니다.

넷째는 나그네로 오래 있다가 고향을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꼭 할 일 만을 하고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 보고할 내용을 염두해 두고 여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보고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다섯째는 여행을 전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옛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민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힘, 지혜의 힘, 물질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땅위에 소망을 둘 자가 아니고 고향인 천국에 소망을 둘 자입니다. 세상은 다니가는 곳입니다. 세상에 돈을 쌓아두며 권세를 자랑하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던 일 하며 보고서 바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몸의 건강으로, 배운 지식으로, 얻은 권세로 섰던 일 많이 하여 하나님께 보고할 것을 준비하는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그림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영육간에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주일을 맞이하며 살펴본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현황

인도네시아 / 서만수 선교사



- 파송일 / 1970. 9. 28
- 가족 / 정소라 사모
- 사역
 1. 자카르타 한인교회 목회
 2. 120여개처 오지교회 개척
 3. 학교 설립 및 지원 사역
 - 1) 인도네시아 말루꾸 기독교대학교에 장학금 지원 (50여명)
 - 2) 자카르타 기독교 사범대학 설립, 중·고등학교 기독교 교사 양성
 - 3) 임마누엘 누산타라 신학교 설립, 오지 개척 교회 사역자 양육
 - 4) 현지 교역자 세미나 및 사역자 양성을 위한 연장 교육 실시
 - 5) 현지인 신학생 장학금 지급
 - 6) 이교도 존락에 유치원 개설
- 기도제목
 1. 현지 개척교회 3,000개 목표 달성을 위하여(현재 122개 개척, 월 10만원이면 1개의 개척 교회를 설립하여 지원 가능함)
 2. 개척된 교회마다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주소 / P.O.Box 2355 JKT 100061 Indonesia
- 전화 / 62-21-530-0037(자택), 723-3864(교회), 548-1313(팩스)
- 기도 결연 / 1교구, 영아부, 장년3부, 소망부, 가브리엘찬양대

독일 / 육호기 선교사



- 파송일 / 1976. 6. 18
- 가족 / 방선이 사모, 혜진, 종승, 혜인
- 사역
 1. 프랑크푸르트 장로교회와 비스바덴교회 목회
 2. 구소련 및 동구권 선교와 성경 반입을 통하여 복음 전파(특히 불가리아와 터키인 사역)
- 기도제목
 1. 비스바덴 교회와 프랑크푸르트 장로교회의 영적 성장과 믿음 신장을 위하여
 2.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300만 터키인에게 성경 보급이 활발히 전개되어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 주소 / Wertheimer Weg 2-4 63128 Dietzenbach Germany

- 전화 / 49-6-074-23355(자택), 36695(팩스)
- 기도 결연 / 6교구, 17교구, 유년부, 소년부, 고등부, 실로암찬양대

이집트 / 이준교 선교사



- 파송일 / 1979. 10. 31
- 가족 / 김수련 사모, 석신, 석현
- 사역
 1.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강의
 2. 교회 개척 사역
 3. 현지인 교회 순회 전도
 4. 수단인 선교
 5. 카이로 한인교회 목회
- 기도제목
 1. 수단인을 위한 개척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2. 이집트 한국종합선교관 건립을 위하여
 3. 자녀교육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 주소 / Maadi P.O.Box 334 Cairo Egypt
- 전화 / 20-2-350-4620(팩스 겸용)
- 기도 결연 / 5교구, 고등부, 에바다부, 새가족부, 시온찬양대

이스라엘 / 김주경 선교사



- 파송일 / 1984. 6. 27
- 가족 / 양천근 사모, 한희
- 사역
 1. 아랍인 선교와 유대 기독교인들과 협력선교
 2. 성지연구소 건립 준비
 3. 성지순례자들의 안내, 통역, 복음전도 및 성경보급 사역
- 기도제목
 1. 현지인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2. 선교기지 구축을 위하여
 3. 성지연구소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주소 / P. O. BOX 23852 Jerusalem Israel
- 전화 / 97-22-5336-806(자택), 5336-769(팩스)
- 기도 결연 / 7교구, 청년교구, 초등부, 청년1부, 장년1부, 호산나찬양대

수리남 / 안석렬 선교사



- 파송일 / 1987. 2. 22
- 가족 / 이성옥 사모, 소영, 위영, 요한
- 사역
 1. 한인교회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양육
 2. 원주민 노방전도
 3. 현지에 취업중인 중국인 및 조선족 선교
 4.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인들과 협력선교
- 기도제목
 1. 마따 인디언 사역에 필요한 교회 건축과 진료소 건축을 위하여
 2. 수리남 한인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되어 이민사회에서 신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3.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하여
- 주소 / P.O.Box 8222 Paramaribo Suriname(South, A)
- 전화 / 59-7-457561(자택), 410555(팩스)
- 기도 결연 / 4교구, 16교구, 고등부, 대학부, 예신부, 아멘찬양대

홍콩·중국 / 김은태 선교사



- 파송일 / 1991. 6. 16
- 가족 / 서인숙 사모, 이삭, 성약
- 사역 /
 1. 우두각교회 목회
 2. 홍콩에서 전도활동과 제자양육 및 기도운동 전개
- 기도제목 /
 1. 온 가족이 성령충만하여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2. 협력할 김영숙 전도사와 천홍승 평신도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3. 중국대륙에 선교 진출 할 수 있도록
 4. 중국대륙의 한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 주소 / 115 Block F, Telford Garden Kowloon Bay, Hong Kong
- 전화 / 85-22-668-8342(자택), 755-9707(팩스)
- 기도 결연 / 2교구, 14교구, 중등1부, 대학부, 에바다부, 임마누엘찬양대

수단 / 김영대 선교사



- 파송일 / 1994. 11. 6
- 가족 / 박영애 사모, 은비, 영화
- 사역
 1. 크리스천 공동체 마을 형성을 통한 복음 전파 추진 (수단국가로부터 소외된 난민들을 수용,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줄 계획)
 2. 선교센터교회 개척 준비
 3. 신학교 강의(전도학)
 4. 성경교재 개발
 5. 에즈라 아카데미 성경공부 지도
- 기도제목
 1. 성경읽기와 연구,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언제나 준비하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2. 모슬렘 지역 복음전파에 전초기지가 될 센터교회가 은혜롭게 개척될 수 있도록
 3. 신학교 강의(전도학)를 통하여 영적 지도자가 양육될 수 있도록
 4. 성경교재 개발과 발간을 위하여
 5. 에즈라 아카데미 성경공부에 열매가 있도록
- 주소 / P.O.Box 12973 Khartoum, Sudan, Africa
- 전화 / 249-11-461-024(주택), 461-966(팩스)
- 기도 결연 / 3교구, 15교구, 중등2부, 청년1부, 영어교육부, 할렐루야찬양대

일본 /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 파송일 / 1976. 4. 3
- 가족 / 이윤호 사모
- 사역
 1. 현지 병원에서 의료사역을 통한 선교
- 기도제목
 1. 의료사역으로 영혼구원에 더욱 힘쓰도록
 2. 우상타파와 일본 복음화를 위하여
 3. 진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4.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 주소 / 日本 北海道 空知郡 北村字赤川 586-63 北村温泉 Nursing Home 舍宅
- 전화 / 81-126-56-2328(주택), 2241(병원), 55-3354(팩스)
- 기도 결연 / 9교구, 유치부, 장년3부

뉴질랜드 / 김형선 평신도선교사



- 파송일 / 1993. 1. 10
- 가족 / 한영자 사모, 회정, 남희, 현주, 우성
- 사역
 1. 뉴질랜드 총현교회 협력 사역
- 기도제목
 1. 뉴질랜드 총현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2. 뉴질랜드 교회가 자립하여 원주민 선교를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도록
- 주소 / 132 Sunset Roa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전화 / 64-9-444-2682
- 기도 결연 / 11교구, 장년1부, 탁아부

호주 / 이기성 평신도선교사



- 파송일 / 1993. 1. 10
- 가족 / 박정아 사모, 은송, 진태, 진영
- 사역
 1. 현지 한인교회와 협력 사역
- 기도제목
 1.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2. 호주 한인교회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3. 성령충만하여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4. 가족의 건강과 새 자녀가 호주 사회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 주소 / 8A Beechworth Rd Pymble Sydney N.S.W Australia 2073
- 전화 / 61-2-44-4460(팩스겸용)
- 기도 결연 / 10교구, 소년부, 장년2부

일본 / 김철영 평신도선교사



- 파송일 / 1993. 7. 11
- 가족 / 찬미(고등부)
- 사역
 1. 오사카 영광교회 협력사역
- 기도제목
 1. 현지 영광교회와 협력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2.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복음증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3.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 주소 / 日本國 大阪府 四條市 大字中野 45番地 3
- 전화 / 81-720-62-0478
- 기도 결연 / 13교구, 청년2부, 사랑부

케냐 /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 파송일 / 1993. 7. 11
- 가족 / 고병욱 장로 가족(국내)
- 사역
 1. 맛사이 부족을 대상으로 유치원 사역
 2. 레레초등학교 사역
- 기도제목
 1. 맛사이 부족의 유치원을 통한 선교사역이 지속되도록
 2. 레레초등학교가 더 원활하게 운영되어서 좋은 인재들이 배출되도록
 3. 케냐 레레 지역에서 철저한 그리스도 전도자가 배출되도록
- 주소 / P.O.Box 49803 Nairobi Kenya
- 전화 / 254-2-711-180, 293, 711-702(팩스)
- 기도 결연 / 12교구, 중등3부, 청년2부, 새가정부

터키 / 김원호 협력선교사(종회파송)



- 파송일자 / 1987. 1. 16
(우리 교회에서는 95년 3월부터 협력 후원)
- 가족 / 한선화 사모, 에스더, 사라, 데보라
- 사역
 1. 제이튼 부르는 교회 사역
 2. 불가리아 방문 선교
- 기도제목
 1. 제이튼 부르는 교회(이스탄불) 부흥을 위하여
 2. 불가리아 터키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3. 새로운 지역에 교회개척을 위하여
 4. 제자훈련 사역을 위하여
- 주소 / Saadetli Sok Mikado Apt 8/4 Yesilkoy Istanbul Turkey
- 전화 / 90-212-663-1239(팩스 겸용)
- 기도 결연 / 8교구, 유아부, 대학부, 청년1부